“美 증오범죄 피해자들 극락왕생하소서”

日 조동종, 반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 합동위령재

치유법회 ‘May We Gather’
백악관도 애도 성명 발표하며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 다짐해

김민재 객원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안티오크 중심가 강둑에 향 내음이 염불 소리와 함께 피어올랐다. 미국 내 반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합동위령재 및 치유 법회 ‘May We Gather’가 애틀랜타 한인 스파 총격 참사 3주기를 맞아 지난 3월 16일 안티오크 엘캄파닐 극장에서 봉행됐다.

일본계 미국 통신사 ‘니치 베이 타임즈’는 3월 28일 캘리포니아에서 봉행된 반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 합동위령재 및 치유 법회 소식을 전했다.

일본 조동종 던컨 윌리엄스 스님의 주최로 열린 이날 위령재에는 각국 스님과 아시아계 미국인 불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그들은 자비의 화신인 천수관음을 모시고 예불을 올렸다. 예불은 팔리어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모국어가 울려 퍼졌다. 불단에는 증오범죄 희생자들의 위패가 놓였다.

애틀랜타 한인 스파 총격 참사는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이 애틀랜타 스파 2곳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다. 8명이 숨졌으며 희생자 중 6명은 한국인 여성이었다. 범인은 “스파 여직원은 유혹의 원천이며 해악이기 때문에 살해했다”고 밝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윌리엄스 스님은 “애틀랜타 총격 참사는 1876년 안티오크 차이나타운 방화 사건과 유사한 반아시안 증오범죄”라면서 “법회 봉행지 안티오크에 드리워진 반아시안 증오정서의 그늘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를 따라 이주한 수천 명의 중국인 이민자를 향한 반중 정서와 폭력이 고조되며 인종에 근거하여 중국인 배제법이 발동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안티오크는 중국 이민자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공개 사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증오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정계에 증오범죄 대응 촉구하고 증오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목표한다”고 법회 취지를 밝혔다.


합동위령제 동참자들이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사진출처=AP통신

아시아계 미국인 차별, 증오 외국인 혐오 사건을 추적하는 사회 단체 ‘스톱 AAPI 헤이트’ 창립자 러셀 증은 “‘May We Gather’의 실천 불교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전통을 되찾고 증오범죄로 인한 도덕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에서는 애도 성명을 내고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을 다짐했다.

하비어 베세라 미 보건복지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3년 전, 애틀랜타에서 고귀한 생명이 무분별한 총격에 쓰러졌다”면서 “우리나라에 급증하는 반아시안 정서에 충격을 주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과 친지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애틀랜타를 비롯한 전국의 아시아계 미국인의 슬픔도 함께 나누겠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부, 불교 사원 폭격…8명 사망

불교계 소수민족 대거 피해

미얀마 군부 공군이 한 불교 수도원을 폭격해 민간인 8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카렌국민연합(KNU) 제5여단의 소식통에 따르면 군부 공군은 카렌주 파푼 타운에서 발생한 격전을 피해 도망친 민간인 카렌족들을 보호하던 뮤마 쉬 크야웅 사원을 3월 31일 오후 1시께 폭격했다. 카렌족은 미얀마 동·남 지역에 거주하는 불교계 소수민족이다.

KNU와 동맹군은 파푼 지역 인근에서 군부와 함께 약 2주간 격전을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달 30일께 KNU와 동맹군이 군부 대대와 무기고를 점령했고, 이에 군부는 크야웅 사원에 대한 폭격을 시작했다.

앞서 KNU는 주민들에게 사원으로 모인 후 대피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KNU는 지난달 25일부터 파푼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난 1일 대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사원을 떠나지 않은 채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월 31일 폭격 당한 사원에서 부상 당한 주민을 스님과 민간인이 구조하고 있다. 사진출처=The Irrawaddy

소식통은 “피해자들은 수도원에 대피한 주민들로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다”며 “상황을 기다리고 지켜보던 중 수도원이 폭격당할 때 공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KNU 제5여단은 지난달 19일께 파푼 남쪽에 있는 군부 통신망 4곳을 격투했다. 이후 군부는 매일 KNU에 대한 공습을 펼치며 보복 대응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美 하버드대, 불교 문명 심포지엄 성료

3월 23일, 학내 아시아센터서
‘간다라 불교 예술’ 등 발제

미국 하버드대학이 불교학 연구 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

텍사스주 지역 언론인 KET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하버드대학은 3월 23일 학내 아시아센터에서 불교 문명과 관련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불교 역사 탐구 및 문화 유산 홍보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 ‘WAKSAW-Uddiyana’과 하버드대학 아시아센터, 불교계 국제 비영리 단체인 우든피스 재단(Woodenfish Foundation)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하버드-옌칭 연구소의 명예 소장인 제임스 로브슨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후 아시아 문명 연구소의 가니 워 라만(Ghani-ur-Rahman) 박사가 ‘간다라 불교 예술: 기원, 주제 및 상징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드렉셀 대학 피아 브란카치오 교수의 ‘간다라 스투파의 건축 재방문: 유물, 왕권, 그리고 헌신’ △워터루 윌프리드 로리어 대학 제이슨 닐리스 교수의 ‘불교적 물질 실천의 지역적 차원’ 주제 발표 등이 진행됐다.


사진출처=KET닷컴

스와트 왕실 가문의 일원인 젠압 아드난 아우랑제브 여사의 개회사로 시작된 오후 세션에서는 베니스 카포스카리(Ca’Foscari) 대학의 루카 M. 올리비에리 교수, 하버드 대학의 채 이레오 박사,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윤요 박사가 발표를 진행했다.

야리 쉔이 WAKSAW 창립자는 “앞으로 불교와 그 역사에 대한 연구와 연구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작업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WAKSAW는 불교 역사와 고고학의 선두주자로서의 명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하버드와 같은 대학들과 의미 있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우리의 공동 미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객원기자

대만 불광산사, 불교 유물 30점 중국에 기증

대만과 중국 문화적 유대
기증 유물 13점 대중에 공개

해외로 불법 반출된 불교 유물을 불광산사가 환수해 중국 문화재청에 기증했다.

지난 3월 25일 중국의 ‘환구시보’와 ‘중국통신사’는 대만 불광산사의 불교 유물 기증 소식을 전했다. 기증 유물은 송나라(960~1279년)부터 청나라(1644~1911년)까지의 유색조형물 총 30점에 이른다. 최근 몇 년간 대만에서 중국으로 기증된 유물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대만 신대학 새미 양 부총장은 “2년 전 대만에서 실시한 사전 감정 결과, 산시성 불교 사원에 있는 일부 불상의 채색 기법, 예술 양식, 재료 및 장인정신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증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중국 베이징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불교 유물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출처=중국통신사

기증 유물은 베이징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대만 중국 인문불교협회 문화유적 기증식’을 통해 전달됐다. 기증식에는 대만과 중국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쑹타오 주임은 “기증된 유물은 다채롭고 화려한 중국 역사와 문화의 증거”라며 “중국 문화를 계승하는데 도움을 준 불광산사 관계자들의 환수 노력과 기증 결정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만 중국 인문불교협회 우치양 공동회장은 “해외에 불법 반출된 유물은 불광산사가 환수한 것으로 잃어버린 물건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지만 운명처럼 환지본처 길에 오른다”면서 “불교문화는 중국 전통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기증 유물이 문화 보전으로 오래 이어지길 당부한다. 기증 유물은 대만과 중국 불교의 문화적 유대를 통한 높은 차원의 의사소통으로, 양국에 평화와 화합, 단합의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번 기증식은 대만 불광산사의 창건주 고(故) 성운 스님의 뜻을 이어받은 불광산사 청년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성운 스님은 2014년 중국 1급 문화유적인 북제(550~577년) 시대 불상을 중국에 기증한 바 있다.

한편 기증식을 마친 뒤 기증 유물 중 불두(佛頭)와 불상 등 13점이 대중에 공개됐다.

김민재 객원기자

